

한국에서 받은 감동

佐野 純子*

27 일 동안의 한국 유학이 끝났다. 이것이 나에게 첫 외국여행이었다. 꿈에까지 나타났던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27 일 동안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철 창문 밖의 경치를 보고 있었더니 마치 지금까지 한국에서 봤던 것이 모두 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러다가 그 기억들이 내 손바닥에서 무심히 사라질 것 같아서 슬프고 무서웠다.

내가 이번 유학을 떠올릴 때 반드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껴질까 하는 것이다. 항상 웃고 있는 과자가게 아줌마도, 너무 빨리 말해서 듣기 연습에 딱 좋았던 기숙사 아저씨도, 공부를 많이 도와준 대학생 오빠 언니들도, 홈스테이나 교류회를 했던 고등학교 친구들도, 전철에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조차 내 예상을 훨씬 넘어 일본인인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는 출발하기 전부터 아주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 그건 일본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였다.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생긴 내 생각은 너무나 치우친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 나는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다.

역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내일을 만드는 양식일 것이다. 역사는 미래를 위해 존재하고 그 미래는 착실하게 역사가 되어 간다. 그런 고리 안에서 바로 옆에 사는 한국과 일본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나는 왜 더 빨리 이런 소중한 것을 알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현지에서 감동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일을 겪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한국과 일본을 지켜보며 미래를 향한 길을 걷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문화

中川 美保*

한국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마음의 문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무엇이든지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사랑의 마음”, “향상심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 강하다.

나는 대학교 3 학년 때 1 년동안 한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때 자주 그런 생각을 했었다. 제일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2014 년 4 월에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사고” 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안전에 주의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다. 사고가 난 다음날 학교의 벽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왜 갑자기 벽에 노란색 리본이 달려 있을 까?” 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것은 행방불명자가 돌아오라고 기원하는 것을 일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2011 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국처럼 금방 추도가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학생들이 모여서 피해자들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빌었다.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친구, 가족처럼 생각하고 행복을 비는 마음이 강하다. 모두가 모르는 척하지 않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도 한국사람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국인 친구가 많은데, 모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친구들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가족과 같이 여행하거나 쇼핑하는 경우가 줄어들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시간이 되면 같이 여행하거나 외식하거나 하면서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먼저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늘 빌고 있다. 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거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강한 문화로 인해 한국사회도 바뀌었다. 한국의 IT 사회는 세계에서 1 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의 향상심과 경쟁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역시 “마음의 문화” 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 자기 행복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빌고 있는 한국이어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과 가족처럼 사귄 수 있는 것 같다. 한국에 가지 않고서는 “마음의 문화” 는 느낄 수가 없다. 아직까지 한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가서 “마음의 문화” 를 느껴 보기 바란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

藤野 和成*

가을이 한창 깊어가는 10 월, 부산에서는 양떼구름이 끼어 있는 높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광안대교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이 대회의 코스에 끌려 나는 참가 신청을 하여 연습에 힘을 기울였다.

대회 전날 밤,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 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음이 설렘.

눈이 빠지도록 손꼽아 기다리던 그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나는 너무 흥분해서인지 꼭두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벌떡 일어났다. 청명한 날씨에 나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한결 부풀었다. 7 시 반쯤에 마라톤 출발 지점에 도착했더니 출발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형색색의 운동복을 입은 수많은 마라톤 애호가들이 벌써 한자리에 모여 준비운동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8 시 30 분에 마라톤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두가 뛰기 시작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1 킬로미터 정도까지는 달린다라기보다는 조깅하는 정도의 속도로 뛰었다. 5 킬로미터 지점을 지나자 생각보다 쾌적하게 될 수 있어서 이대로만 가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골인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광안대교에 들어섰다. 달리는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다리 밑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즐기는 여유도 있었다.'이대로 끝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12 킬로미터를 지난 지점이 되자 다리에 피로가 쌓였는지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양팔을 크게 움직이고 숨을 고르기 위해 심호흡을 몇 번이고 거듭했으나 몸은 힘들어질 뿐이었다.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 도중까지는 앞서거나 뒤서거나하며 뛰었던 친구들도 이미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여기서 마라톤을 포기해야 할까?'지쳐버린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바로 그 때였다. 한국말과 일본말을 섞어 "화이팅! 간밧테!"라고 되풀이하여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더니 어느 한국인 선수가 뛰면서 나를 응원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서 내가 뛰는 속도에 맞춰 내 옆에서 나란히 함께 뛰어 주었다. 배번호에 적혀 있는 내 이름을 보고 일본말로 "간밧테!"라고 응원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뛰는 사람이 생겨서 내 마음은 훨씬 편해졌고 나는 뛰는 힘을 다시 되찾았다.

5 킬로미터 정도 함께 뛰었다가 그는 "나 먼저 갈게요. 간밧테쿠다사이!" 라고 말하면서 속도를 올리며 앞으로 가버렸다. 나도 그 선수에게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낼게요!"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한국인 선수의 응원 덕분에 나는 힘을 얻어 하프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다. 안간힘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완주했다. 완주 후 나는 온 몸이 쥐가 나는 피로감을 느끼며 기진맥진했다. 결국 내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감동의 눈물이 날 정도로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국인 선수가 나에게 건넨 "간밧테!"라는 목소리는 지금도 내 귓속에 남아 있고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나는 연습을 거듭하여 한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도전할 계획이다. 다음은 내가 한국인 선수에게 힘이 되어 줄 차례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골인할 때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

내 사랑 김밥이

松本 彩香*

나는 솔직히 김밥을 너무 좋아한다. 한국에선 좋아하는 거 위에 사랑하는 게 있다고 들었으니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걸까.

김밥만큼 먹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음식은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 콘테스트를 알고 나서 고민하던 내 마음 속에 역시나 김밥이 떠올랐고, 다시 한번 김밥에 대한 내 사랑의 무게를 재보고 싶어졌다.

김밥은 참 겸손한 아이다. 미처 밥을 못 먹고 집을 나서거나 혼자서 끼니를 때워야 할 때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내 눈 앞에 나타난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나에겐 그렇게 단순한 존재이진 않다.

내가 처음 김밥을 만난 건 고등학생 때였다. 학교 교류프로그램으로 한국 친구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김밥이를 만났다. 겉으로 보기엔 일본에서 먹던 김밥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지만 입 안에 넣었던 그 순간의 충격 (지금 돌이켜보면 감동) 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제각기 다른 색을 가진 재료들이 하얀 쌀밥을 옷으로 입고 얌전히 쉬고 있다가 내 입 안에 들어와 떠들썩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단무지는 일본 단무지랑은 다르게 너무 달콤했고 사각사각했던 입맛을 기억한다. 그때부터 단무지가 없는 김밥은 미안하지만 김밥이 아니게 되었다.

지금 나에겐 김밥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 사람인 그를 위해 나는 김밥을 내 손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졌는데, 만드는 법을 찾아봤더니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버렸다. 김밥 속으로 쓸 오이를 준비하는 데만 30분 넘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 단무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없으면 안되는 당근도, 이빨 사이에 끼는 시금치도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다. 책에서 가르쳐 준대로 해 봤더니, 고작 한 줄 완성하는데 1시간도 더 걸렸던 것 같다.

그때 나는 김밥의 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듬뿍 담긴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거란 걸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간단해 보이던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다.

주제넘은 얘기일 순 있겠지만, 일본과 한국도 김밥처럼 되면 어떨까? 김밥은 하나하나 다르게 조리한 가지각색의 재료가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사이 좋게 동거하고 있다. 사이가 안 좋아서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너무 아쉽고, 그 아이는 서러워질 것이다. 다른 이들이 모여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을, 김밥이가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김밥을 만들어 보며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일본과 한국이 김밥처럼 친한 사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학처럼

両角 美貴子*

한국 드라마인 “황진이”를 본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4년 이상 됐으니까 그 드라마를 봤을 때도 4년쯤 전인 것 같다. 그 드라마를 보고 나는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 왜냐하면 내용이 좋으면서 연기자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춤과 의상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DVD도 사서 그 동안 20번 이상 본 것 같다.

그 열정은 내가 젊었을 때 느낀 연애와 닮은 것 같다. 아주 많이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물론 한국 전통 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나이를 생각해서 “난 벌써 50대 아줌마이야. 할래야 할 수 없어. 못 할 게 뻔하다. 하늘의 별 따기지.” 라고 생각해서 내내 포기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 1년전에 한국 문화원의 홈 페이지에서 춤 강좌에 대해 정보를 찾았던 순간 나는 마음을 먹었다.

춤을 배웠던 첫날을 잊지 못 했다. 처음으로 버선이나 속바지 연습용 치마를 입은 나는 마치 무용가가 됐다라는 기분이었다. 그 날에 김순자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한국 전통 춤이란 우주를 추는 춤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몸이 단단해지는 데다가 매년 늘어 나고 있는 내 체중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추는 내 모습이 상상되어서 정말로 행복했다.

어느 날 문화원에서 한국 전통 무용의 공연을 감상했다. 진도 장고춤을 비롯하여 경기 칼춤 살풀이 승무 등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한국 무용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게 됐다. 그 후에 나도 문화원의 발표회에서 무대에 나올 기회가 생겼다. 상연 종목은 농악 소고춤이었다. 꽃갓을 쓰고 예쁜 의상도 입고 긴장을 하면서도 미소 짓는 얼굴로 춤을 추었던 나는 바로 황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쨌든 “웃이 날개가 되”기 마련이다. 내 춤을 본 친구들이 모두 다 “귀여워. 잘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칭찬해 주었기에 내 자랑도 가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2년째 춤 강좌가 시작됐다. 첫날에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발의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하셨다. “발을 땅에 내릴 때 더 우아하게 마치 학이 내려오듯이 하셔야 돼요. 황진이 드라마의 안에서도 스승님께서 황진이한테 그렇게 지도하고 있었죠. 기억해요?” 기억하고 말고. 워낙 나는 그 드라마를 20번 이상 본 사람이니까. 아줌마인 나도 지금 큰 꿈이 생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진정으로 날개를 몸에 익히고 정말 “학처럼” 춤을 추고 싶다고...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松坂 なつき*

올해 3 월 10 일부터 4 월 5 일까지의 27 일 동안 나는 한국 단기 유학에 참가했다. 언어 배우기, 문화, 예의 알기 등 출발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힘이 되어준 것은 역시 현지의 사람들이었다. 27 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에 남아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한국에 와서 3 일 정도 지났을 때, 저녁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기숙사 근처에 있는 잡화점에 갔다. 가게에는 무뚝뚝한 아저씨가 혼자 계셨다. 계산할 때도 전혀 웃음이 없었다. 계산을 한 후 한국어로 “저희는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다. 우리가 일본어로 수다를 떨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는 우리가 한국어를 전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주 놀라셨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왜 한국에 왔는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한국생활은 어떤지 등 많이 말을 걸어 주셨다. 그날부터 일과처럼 아저씨를 만나러 가게에 갔다. 교복을 입고 간 날에는 일본과 한국의 교복이 다르다는 말을 하셨고, 주스를 주신 날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날에 아저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기념으로”라고 가게에서 팔고 있는 팔찌를 주셨다. 아저씨의 친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할 때 언어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라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쉬운 인사 하나라도 좋다.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알아준다는 것은 역시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기쁜 것이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교류가 있다는 것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阿南 千恵美*

5년 전의 나는 한국에 전혀 관심 없는 평범한 회사원 이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동방신기가 내 마음속에 ‘한국’라는 씨를 뿌렸다. 그 씨는 매일 크게 성장했고 뿌리를 내렸다. 나는 그 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씨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 나는 무엇이 물과 영양분인지 깊이 생각했고 그 결과, 한국문화와 한국어가 나에게 있어 물과 영양분인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물과 영양분을 줄 사람을 찾았다.

윤 빛나 씨는 일주일에 한번 나에게 한국어라고 하는 물과 한국문화라고 하는 영양분을 준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도 함께 먹는다.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빛나 씨는 일본에 온 직후였다. 처음 만난 낯선 일본인의 집에 와서 낯선 사람이 준비한 식사를 할 때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에게도 빛나 씨는 처음 본 낯선 외국인 이었으니까. 하지만 빛나 씨도 나도 서로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고, 그렇게 빛나 씨가 준 물과 영양분 덕분에 나의 씨는 크게 성장했다.

빛나 씨가 물과 영양분을 주는 3년간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도 씨를 더욱 크게 성장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더 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 서울에서 “한국어 잘하시네요.”라고 먼저 말을 걸어준 택시기사 아저씨. “같이 사진 찍자.”라고 제안하던 삼청동의 아저씨. 명동에서 “벌써 돌아가요?”라며 손을 흔들어주던 할아버지까지. 나와 스쳐 지나간 모든 한국인과의 만남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다.

내 마음속의 씨는 지금 큰 나무가 되었다. 언젠가 빛나 씨가 결혼하고 엄마가 되어서 우리들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아이에게 이야기 해줄 때, 그 때야말로 내가 소중히 지킨 씨에는 무궁화처럼, 벚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미래에 이어질 것이라 나는 믿고 있다.

우리는 한일양국 약 2억 명 중 작고 작은 존재이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의 씨를 매개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올해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다. 양국의 역사로 보면 5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며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교류’는 단순히 ‘교류’인 채로 ‘우호’까지 발전하지 못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의 마음 속에 작은 씨를 뿌려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波形 洋子*

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그 배경도 배울 수 있는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영어회화,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문화...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것은 그냥 학문의 대상일 뿐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요즘 국제교류...특히 한일 교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교류”라는 말을 떠올리면 왠지 거창한 느낌이다. 그것은 좀 더 단순한 것, 좀 더 신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그러면 교류가 무엇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10년 이상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일본어 책을 읽고 있었을 때 한국 아저씨가 갑자기 일본어로 제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1997년에 호주에서 영어 어학당에 다녔을 때 처음으로 배운 말이 아이스브레이커(icebreaker)였다. 그것은 침묵(이라는 얼음)을 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의미로 볼 때 그 아저씨는 바로 아이스브레이커였다. 또 다른 날, 서울 대학로에서 저한테 극장 가는 길을 알려 주신 분은 마지막에 “재미있게 보세요.”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다. 그때 저는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한국 여행자가 제게 길을 물어 왔을 때 한국어로 답하기가 부끄러워 일본어로 설명해 버린 적이 있다. 그땐 제게 타협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남아 뒷맛이 개운치 않았던 추억이었다. 그러던 후 서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길을 물어왔을 때 긴장했지만, 한국어로 길을 알려 드릴 수가 있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 좋은 느낌을 다음에 제가 답례한다...그것이 교류의 결과가 아닌가?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양국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탁상공론형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 대 나라라는 큰일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 사람 대 사람이라는 관계가 아닐까?

“교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exchange”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저는 “교류”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쌓아 가는 게 한일교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엔 첫째로 아이스브레이커가 되는 것. 소중한 것은 서로가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어, 소중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한일교류를 즐기고 싶다.